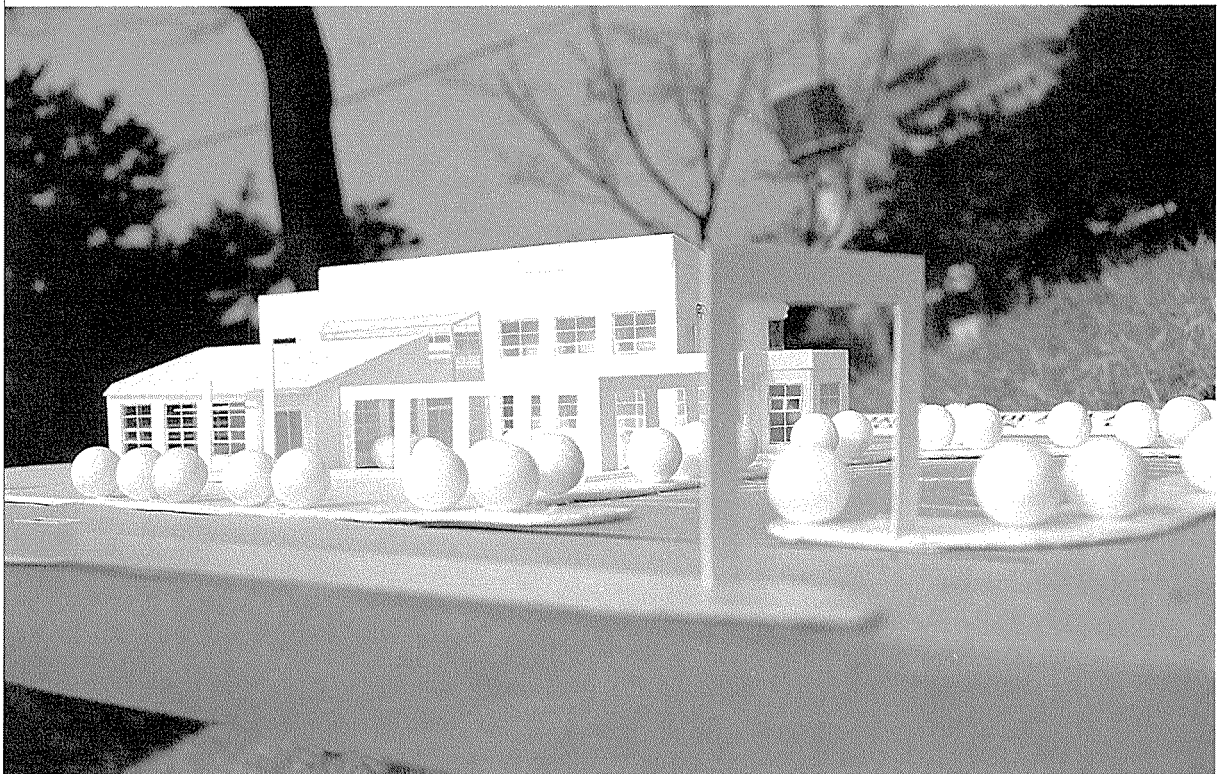


메디슨 기숙사 Medison Guest House

김상경 / (주)KSK건축사사무소
by Kim Sang-Kyung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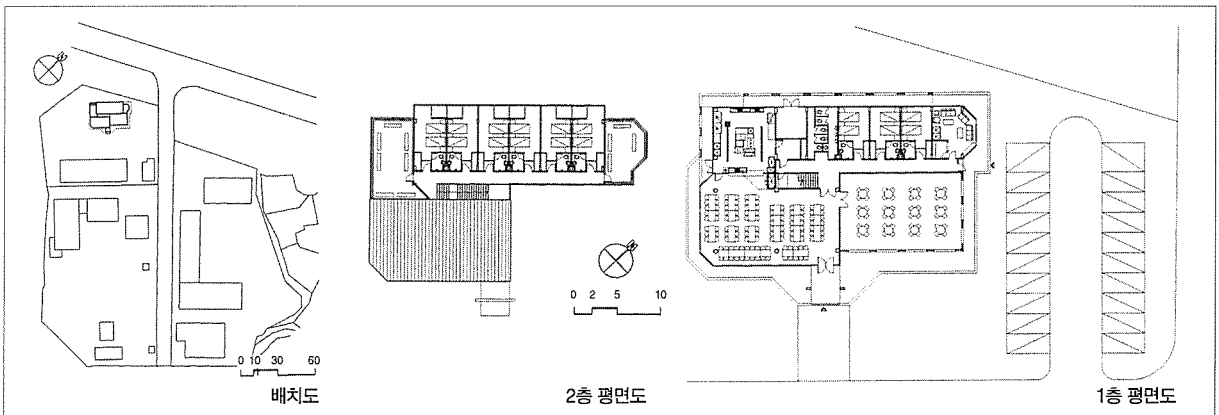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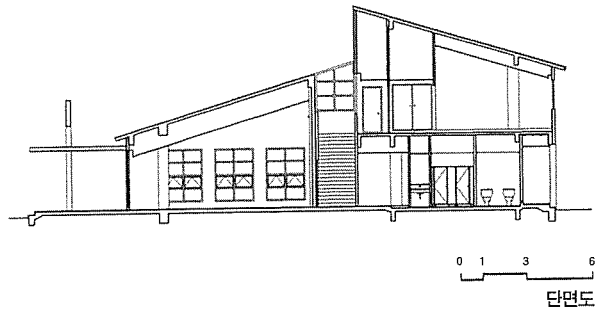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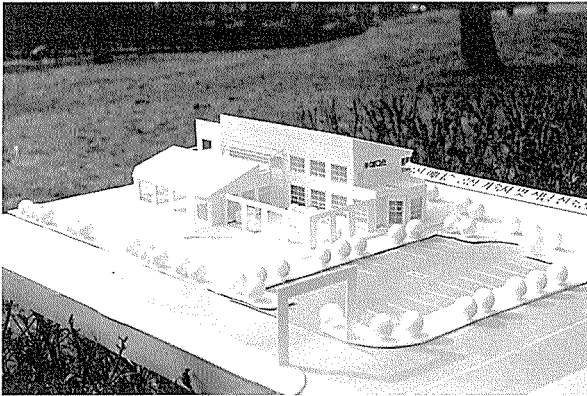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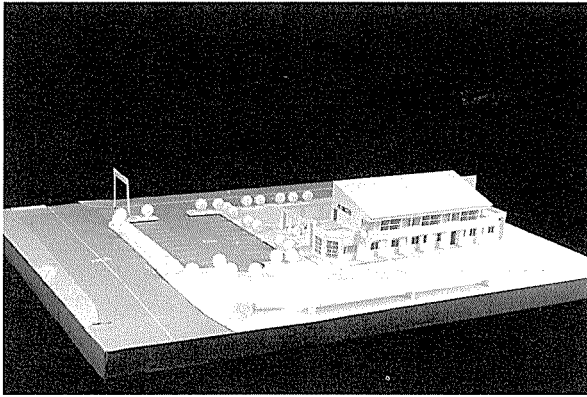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메디슨 공장부지내에 식당과 기숙사를 함께 수용하는 부대시설이다. 대명스키장으로 가는 강원도 홍천의 국도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낮은 산이 보이는 공기가 맑은 쾌적한 장소이다.

메디슨 공장의 첫인상은 기존의 공장환경으로써 우리가 늘 대할 수 있듯이 비교적 단조로운 건축환경이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식당과 기숙사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의 설계를 의료받았고 건축주는 전적으로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어떠한 집을 만들어야 할까 하고 구상하

면서 비록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메디슨의 「Guest House」로써 식사, 기숙사, 휴게 기능을 수용하면서 외부 방문객들도 잠시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고도의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정확하고 치밀한 작업을 하면서 경험하는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면서 자유스러움을 경험하고 활력을 다시 찾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가? 긴장 속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 잠시 동안이나마 긴장을 풀고 마음껏 자연 환경속에서 쉬는 시간은 얼마나 통쾌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대하였고, 건축가로서 기여할 부분이 대단



히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면서 식사공간 앞의 전정을 가벽(Secondary Wall)으로 세워서 식당의 문만 열면 비교적 영역화된 알뜰한 외부공간이 있어서 함께 내외부공간의 비교적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리고 2층의 기숙사로 올라가는 동선을 기숙사 복도와 평행하여 갤러리(Gallery) 개념으로 동선의 유도를 분명하게 하면서, 2층의 기숙사 공간에 비교적 넓은 테라스 공간을 창조하여 바깥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유있는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전면의 식당과 후면의 기숙사 2개의 Mass를 계단 및 복도 공간의 매개로 분리하면서 단순화시켜 급격한 절제하였다. 건식공법 위 Plaster로 마감하여 특히 각 Mass는 색

상을 열린 Gray(식당)와 짙은 Gray(기숙사)로 매스(Mass)의 처리를 차별화 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경사지붕의 실내천정은 그대로 내부의 경사천정으로 끌어들이면서 바깥의 풍경을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내부에서도 시원하게 바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처리하였다.

지금 한창 공사중이며 다가오는 가을에 건축이 완성되면 희망했듯이 기능적이지만 딱 자유스럽고 여유가 생기는 집이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건축가의 의지가 가능한 한 덜 보이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환경과 조화되는,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이,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편안하고 가벼운 분위기의 집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성취된다면, 건축가로서 경험하는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